
제주의
숨겨진
꽃보물
展
비자란

기 간

2018. 8. 8.(수) ~ 10. 14.(일)

장 소

민속자연사박물관 수눌음관 특별전시실

제139회 특별전

제주의 숨겨진 꽃을 展



“제주의 숨겨진 ‘꽃 보물’, 긋찌 지키게마씀”



채색 세밀화 : **만년콩**

성하지절(盛夏之節)입니다.
지속되는 8월의 불볕더위 속에서도 점차 짙어지는 제주 들녘의 푸르름이나 에메랄드 빛 바다 풍경이 우리 마음에 더욱 큰 위안을 주는 계절입니다. 상록의 숲에서는 피톤치드가 쏟아지고 수많은 종류의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며 자태를 뽐내는 산야 풍경은 생활인들에게 무척 유용한 힐링의 공간입니다.

제주지역 곳곳의 보물 같은 곶자왈, 숲길, 바닷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 그 속에서 자라나는 뭇 생명체들의 존귀함을 문득문득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인류가 해결해야 할 이슈로 떠오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자연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촌 생물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적 요소로 다가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개발 행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식물들의 서식 환경을 빠르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소한 생명체들이 호흡하며 살아갈만한 환경마저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는 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심화되면서 자연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멸종위기 동·식물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된 보호의 손길을 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청정 제주를 위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식물종들의 꽃을 채색 세밀화와 모형, 표본, 영상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의 숨겨진 꽃 보물」을 주제로 하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제주의 '꽃 보물'들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한데 마음을 모아 지켜나가고 천혜의 청정 제주를 후손 만대에까지 길이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전을 위해 도움주신 한라산연구부 김현철 박사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2018. 8. 8.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 세 호**

제주의 숨겨진 꽃, 보물 展



채색 세밀화 : **암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으로 인증 받은 제주도는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이다. 그만큼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천혜의 제주 자연생태계는 동·식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무척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해안지대부터 한라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난대식물, 초지, 활엽수, 침엽수, 관목, 고산식물대로 이어지면서 식물도감을 펼쳐놓은 듯한 제주의 청정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날 수 있다. 식물의 경우 300여종의 특산식물을 포함하여 1,800종에 이르는 다양한 분포 양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물론 제주도에 불어닥친 개발광풍,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생물종의 서식처인 자연환경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파괴되면서 멸종위기 식물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식물의 실상을 바로 알린다는 의미에서 「제주의 숨겨진 꽃 보물」 특별전을 마련하였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식물종의 꽃들을 알기 쉬운 채색 세밀화(검은별고사리 등 25점)를 비롯하여 모형(금자란 등 10여점)과 표본(솔잎난 등 7점), 영상(야생화 영상) 등을 통하여 제주의 생태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멸종위기종(CR-매우 가까운 장래에 야생에서 멸종 위험성이 매우 높은 종)과 위기종(EN-위급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자생지에서 매우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할 위기식물)의 두 가지 테마로 나누어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감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멸종위기종(CR, Critically Endangered)

검은별고사리, 금자란, 두잎약난초, 만년콩,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비자란, 석곡, 손바닥난초, 암매, 으름난초, 자주땅귀개, 제주고사리삼, 죽절초, 지네발란, 차걸이란, 초령목, 콩짜개란, 탐라난, 한라솜다리

위기종(EN, Endangered)

대흥란, 삼백초, 솔붓꽃, 솔잎란, 혹난초

제주의 숨겨진 꽃들 展



차
례

04 모시는 글
06 전시 서문

멸종위기종 (CR)
10 검은별고사리
11 금자란
12 두잎약난초
13 만년콩
14 백양더부살이
15 백운란
16 비자란
17 석곡
18 손바닥난초
19 암매
20 으름난초
21 자주땅귀개
22 제주고사리삼
23 죽절초
24 지네발란
25 차걸이란
26 초령목
27 콩짜개란
28 탐라난
29 한라솜다리

위기종 (EN)
30 대흥란
31 삼백초
32 솔붓꽃
33 솔잎란
34 혹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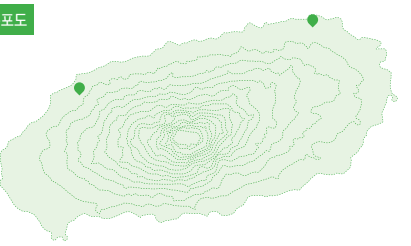
검은별고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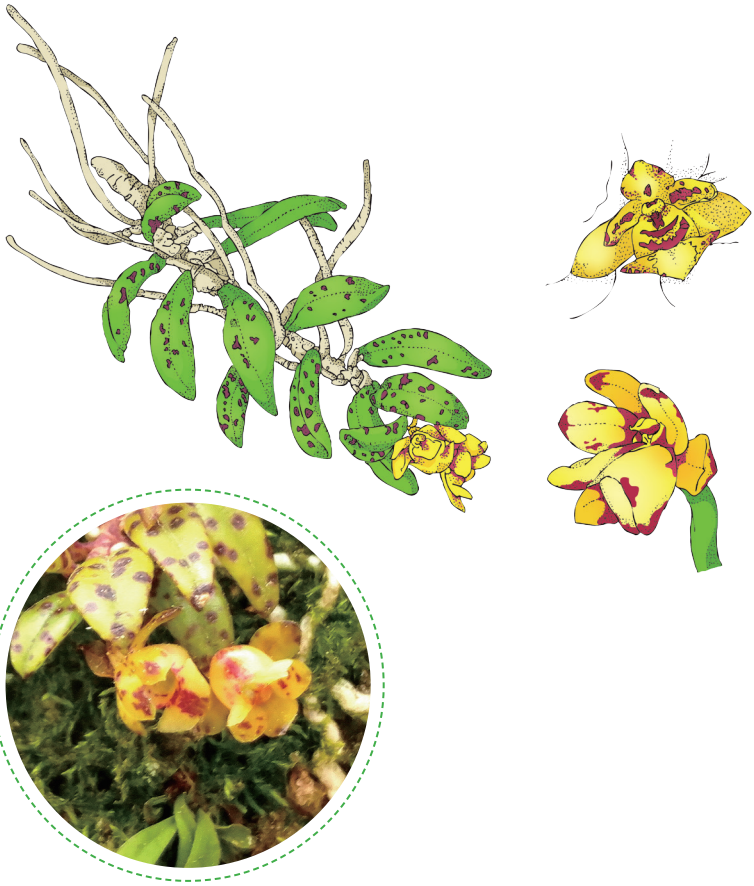
Thelypteris interrupta (Willd.) K.Iwats.

특징 여러해살이

제주시 구좌읍에서 채집된 표본을 근거로 2002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으며 이후 덩개해안(김녕리), 서귀포 등지에서 분포가 확인되고 있다. 식물체가 마르면 검게 변한다.

분포도





금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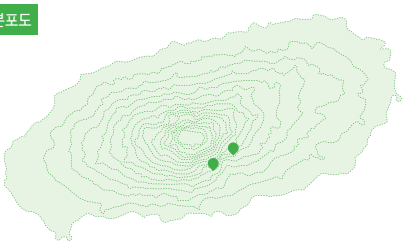
Gastrochilus fuscopunctatus (Hayata) Hayata

개화기 5 ~ 6월

특징 여러해살이

경남 남해군 금산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잎에 자주색 반점이 많아 '금산자주난초'로 불리다 지금은 줄여서 금자란이라고 부른다. 자주색 반점이 있는 연한 황록색 꽃이 5~6월에 핀다.

분포도









두잎약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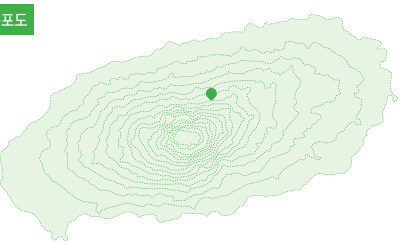
Cremastra unguiculata (Finet) Finet

개화기 5 ~ 6월

특징 여러해살이

잎이 1~2개씩 나고 5~6월에 황갈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의 꽃이 핀다. 꽃이 피면 잎은 시들어 버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분포하며 개체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분포도













만년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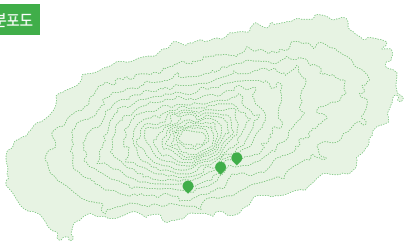
Euchresta japonica Regel

개화기 6 ~ 7월

특징 관목

1970년 8월 김이만 옹이 제주도 서귀포 돈내코 계곡의 상록활엽수림에서 발견하였다. 만년콩의 '년'은 늘 푸름을 의미하고, 김이만 옹의 끝자 만(萬)을 붙여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다.

분포도











백양더부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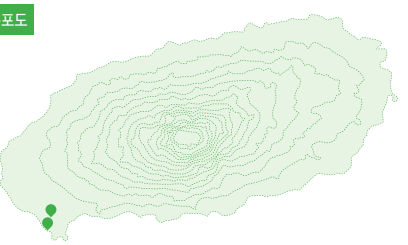
Orobanche filicicola Nakai

개화기 5 ~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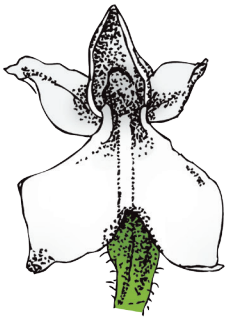
특징 한해살이

1928년 전라남도 장성군 백양사 인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쑥 뿌리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식물로 5~6월에 보라색 바탕에 흰 줄무늬가 있는 통꽃이 핀다.

분포도













백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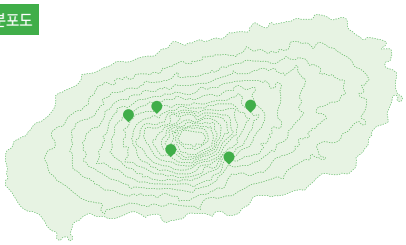
Vexillabium yakushimensis (Yamam.) F.Maek.

개화기 7월

특징 여러해살이

우리나라의 백운산, 내장산 일대 및 제주도 등지에 분포하며 때죽나무와 서어나무가 많은 숲속에서 자란다. 꽃은 7월에 흰색으로 핀다.

분포도







비자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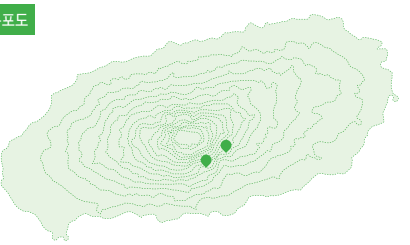
Sarcochilus japonicus (Rchb.f.) Miq.

개화기 4 ~ 5월

특징 여러해살이

제주도 남쪽 계곡 및 비자림지대에서 자라며 꽃은 4~5월 긴 타원형의 연한 황색으로 핀다. 뿌리는 줄기 중앙 아래의 잎 사이에서 나온다.

분포도







석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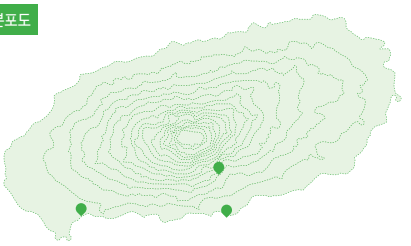
Dendrobium moniliforme (L.) 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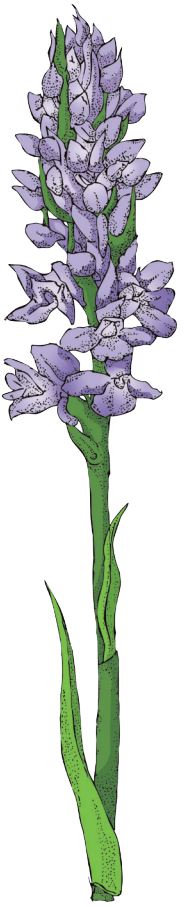
개화기 5 ~ 6월

특징 여러해살이

돌이나 죽은 나무줄기에 착생하여 자란다. 꽃은 5~6월에 오래된 줄기의 위쪽 마디에 흰색 혹은 연분홍색으로 핀다. 줄기 모양이 금비녀의 끝부분과 비슷하다고 해서 '금채(金釵)'라고도 한다.

분포도









손바닥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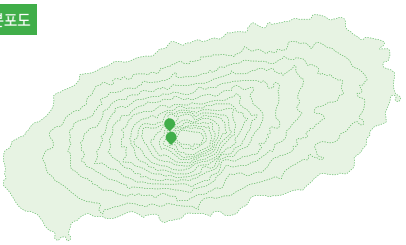
Gymnadenia conopsea (L.) R.A.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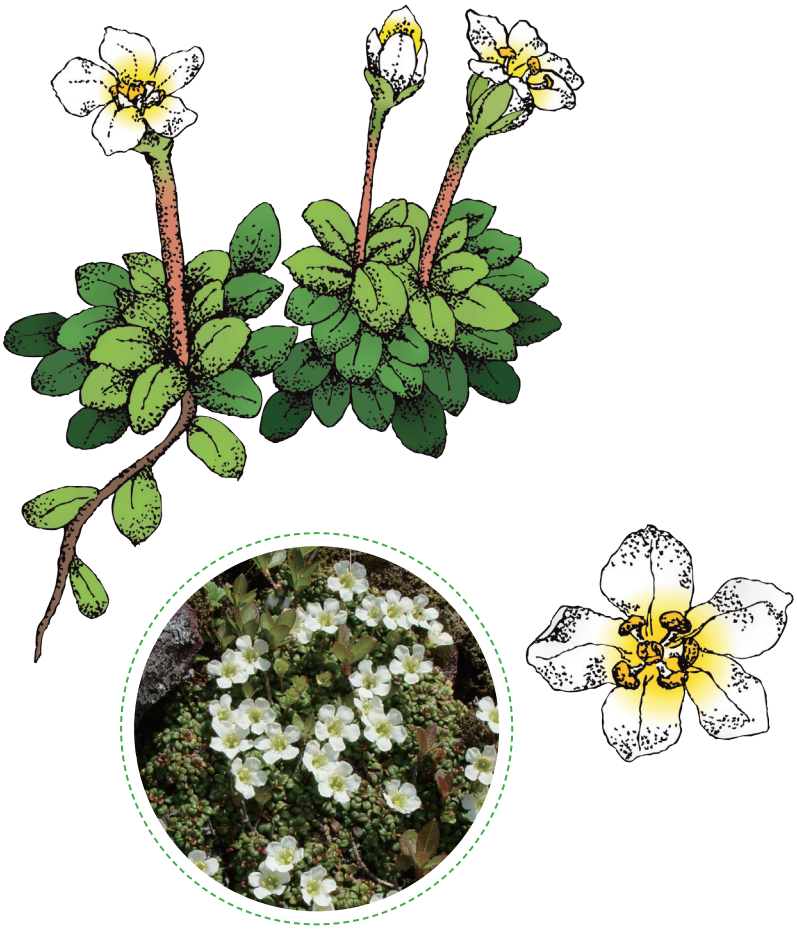
개화기 7 ~ 8월

특징 여러해살이

뿌리의 생김새가 사람의 손바닥과 비슷하다고 해서 '손바닥난초'라고 부른다. 뿌리는 약재로 사용된다. 꽃은 7~8월에 피며 연한 홍자색을 띤다.

분포도





암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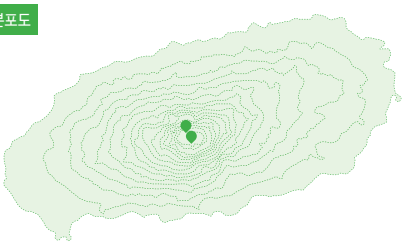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F. Schmi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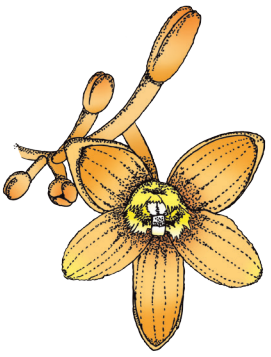
개화기 6월

특징 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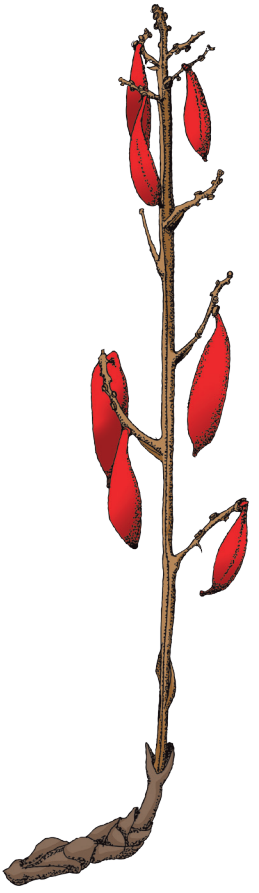
한라산 정상부의 암벽에서 자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나무이다. 여름에 피는 백색, 홍색 꽃이 마치 매화꽃과 닮아 화려하고 아름다워 '돌매화나무'로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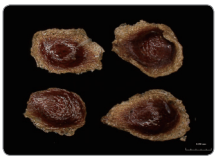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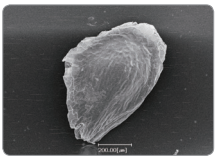












으름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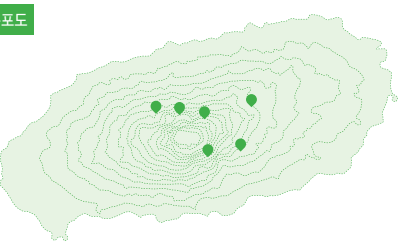
Galeola septentrionalis Rchb.f

개화기 6 ~ 7월

특징 여러해살이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낙엽활엽수림대 및 곶자왈지역 등에 분포한다. 6~7월에 노란 빛을 띤 갈색 꽃이 핀다. 열매가 으름 같이 생겨 '으름난초'라고 부르며 부생식물로서 뿌리 속에 아르밀라리아라고 하는 버섯의 균사가 들어있다.

분포도







자주땅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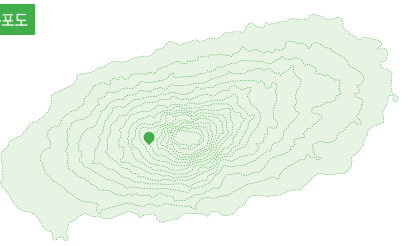
Utricularia yakusimensis Masam.

개화기 8 ~ 10월

특징 여러해살이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습지에 드물게 분포하며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이다. 8~10월에 자주색의 꽃이 피고 땅귀개를 닮았다.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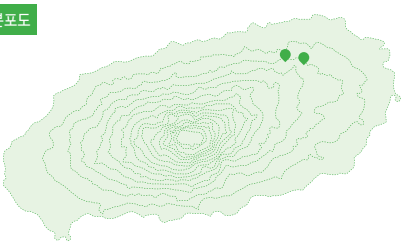
제주고사리삼

Mankyua chejuense B.Y. Sun, M.H. Kim & C.H. Kim

특징 여러해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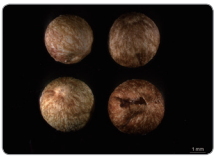
양치식물로 세계적으로 제주도 곶자왈이 유일한 자생지이다. 2001년 제주대학교 김문홍과 전북대학교 선병윤이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학명은 식물학자인 박만규와 제주도의 이름을 따서 '만규아 제주엔세(*Mankyua chejuense*)'로 명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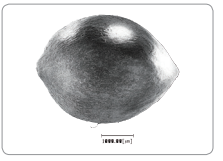
분포도











죽절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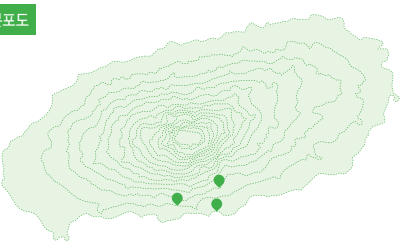
Sarcandra glabra (Thunb.) Nakai

개화기 6 ~ 7월

특징 여러해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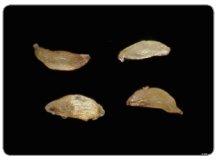
지상부 줄기에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 '죽절초'라 불리며 천지연 등 서귀포지역 계곡에 드물게 자란다. 6~7월에 흰색의 꽃이 피며, 열매는 10월에서 이듬해 4월에 붉게 익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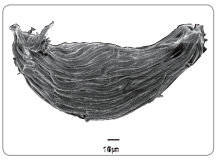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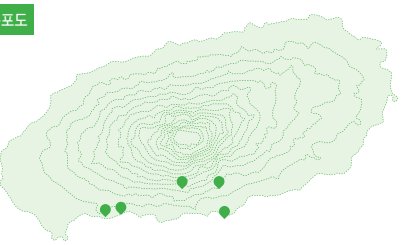
지네발란

Sarcanthus scolopendrifolius Makino

개화기 7 ~ 8월
특징 여러해살이

햇볕이 잘 드는 오름의 노출된 암벽이나 나무에 붙어 산다. 꽃은 7~8월에 연한 붉은 빛으로 핀다. 지네가 기어가는 모습과 흡사하게 생겼다. 서귀포 지역의 계곡이나 오름에 자생하며, 전남 유달산에도 분포한다.

분포도







차걸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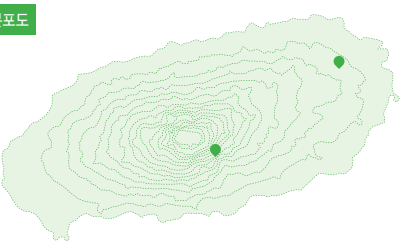
Oberonia japonica (Maxim.) Makino

개화기 4 ~ 6월

특징 여러해살이

숲속의 큰 나무에 붙어서 자라며 밑을 향한다. 꽃줄기는 그 모양이 자동차의 장식용이나 손잡이로 쓰이는 차걸이를 닮았다. 4~6월에 노란빛이 도는 연한 갈색의 꽃이 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에 분포한다.

분포도



멸종위기종(CR, Critically Endangered)



초령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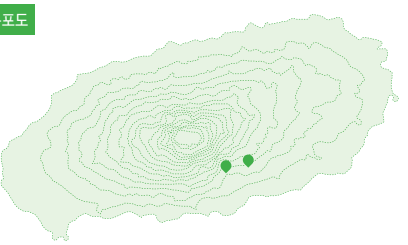
Michelia compressa (Maxim.) Sarg.

개화기 2 ~ 4월

특징 관목

이 나무의 가지를 신전에 놓고 신령을 불렀기 때문에 '초령목(招靈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귀신나무라고도 부르며 신을 초대하는 나무라고도 한다. 목련과에 속하며 제주지역의 계곡에 드물게 자라고 꽃은 2~4월에 흰 꽃이 핀다.

분포도





콩짜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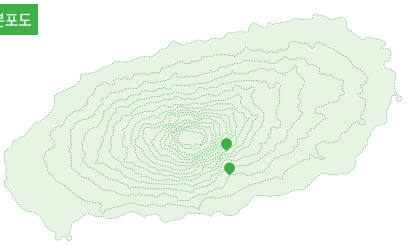
Bulbophyllum drymoglossum Maxim. ex Okub.

개화기 5 ~ 6월

특징 여러해살이

잎이 콩짜개덩굴과 비슷하고 난초 종류라는 뜻으로 나무줄기나 바위에 붙어 자라는 착생란이다. 꽃은 5~6월에 나오는 꽃줄기 끝에 한 개씩 연한 노란색으로 핀다.

분포도







탐라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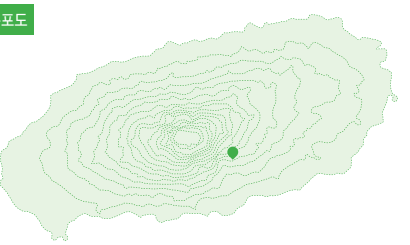
Saccolabium japonicum Makino

개화기 7월

특징 여러해살이

제주에서 자란다는 뜻으로 공기뿌리가 발달하여 나무줄기에 붙은 채 살아간다. 꽃은 담황색으로 4~10송이가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분포도







한라솜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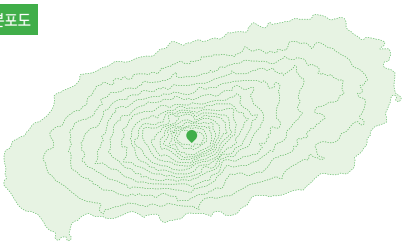
Leontopodium hallaisanense Hand.-Mazz.

개화기 8월

특징 여러해살이

한라산의 '에델바이스(edelweiss)'로도 불리며 백록담의 남서사면이 한라솜다리의 유일한 자생지이다. 8월에 꽃이 피며 전체에 솜털이 밀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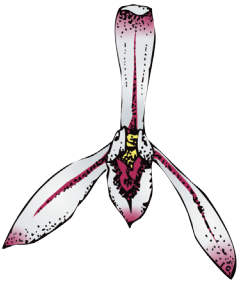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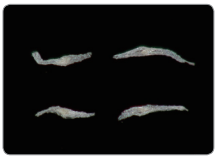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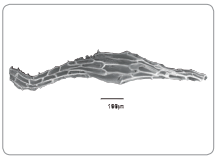
위기종(EN, Endangered)











대흥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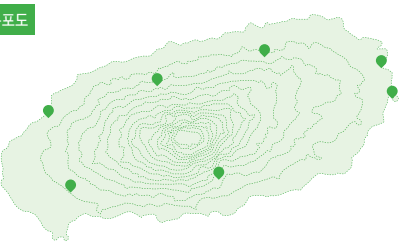
Cymbidium macrorrhizum Lind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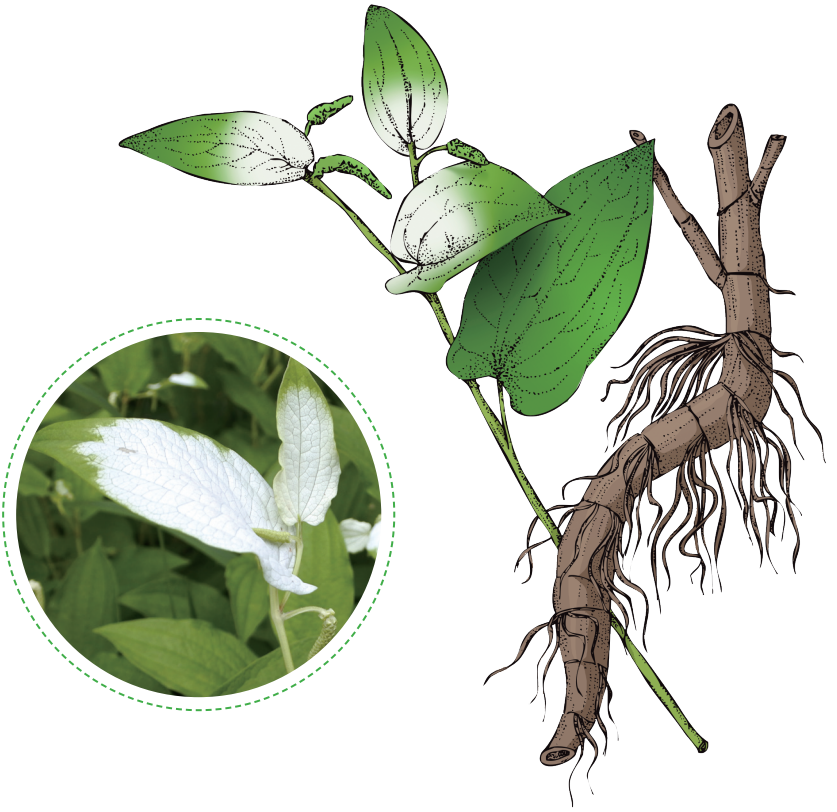
개화기 7 ~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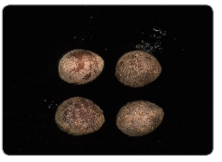
특징 여러해살이

전남 해남 대흥사 부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낙엽이 많이 쌓이는 숲속에서 자라며 7~8월에 흰색 바탕에 홍자색이 도는 꽃이 핀다. 꽃받침은 달걀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며 끝이 뾰족하다.

분포도









삼백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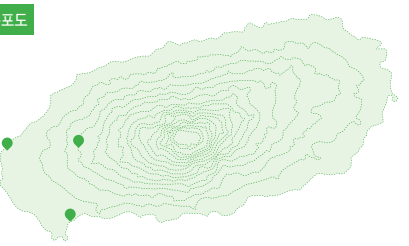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개화기 6 ~ 8월

특징 여러해살이

개화기의 잎과 꽃, 뿌리가 모두 흰색이라 '삼백초'라 불린다. 제주도의 서부지역 하천변이나 습지에 자라며, 일본, 중국, 필리핀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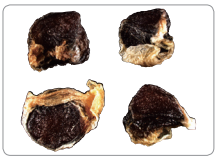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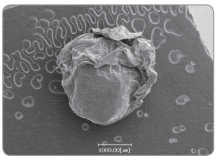


위기종(EN, Endangered)









솔붓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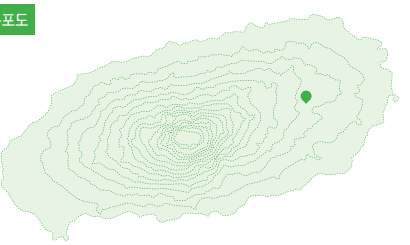
Iris ruthenica Ker Gawl.

개화기 4 ~ 5월

특징 여러해살이

붓꽃은 꽃이 피기 전의 꽃봉오리 모양이 먹물을 머금은 붓을 닮아서 '붓꽃'이라 불린다. 솔붓꽃 뿌리는 철사처럼 빳빳하여 우리 조상들은 이를 솔로 만들어 삼베를 짤 때 풀을 먹이는 도구로 이용했다. 또 뿌리를 뭉치면 수세미처럼 쓸 수 있어 무쇠솥의 바닥을 닦는 데도 사용했다.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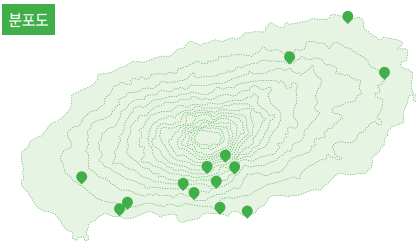
솔잎란

Psilotum nudum (L.) P. Beauv.

특징 여러해살이

난초가 아니라 양치식물이면서 난초라는 이름이 붙은 솔잎란은 데본기와 실루리아기에 번성했던 원시 양치식물이다. 녹색가지가 솔잎 같이 보인다고 해서 '솔잎란'이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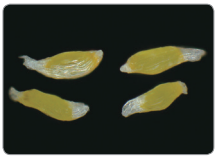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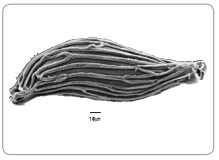


위기종(EN, Endangered)









혹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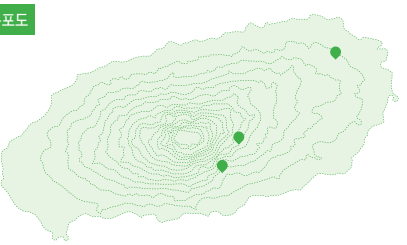
Bulbophyllum inconspicuum Maxim.

개화기 6 ~ 7월

특징 여러해살이

뿌리줄기에 헛알줄기가 달려있어 이 모양이 혹 또는 보리처럼 보여 '혹난초' 또는 '보리난초'라 불린다. 6~7월에 노란색 꽃이 피며,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전라남도 등에서 자생한다.

분포도



제주도의 희귀식물 목록 (IUCN평가기준)

야생멸종_EW(Extinct in the wild) : 2종			
벌리먹이말	파초일엽		

멸종위기종_CR(Critically Endangered) : 70종			
검은별고사리	구름송이풀	금새우난초	금자란
나도풍란	나시미역고사리	남가새	남바람꽃
눈썹고사리	닻꽃	덩굴모밀	두잎감자난초
두잎약난초	들통발	만년콩	목련
무주나무	물부추	바위모시(비양나무)	방울난초
백양더부살이	백운난	버어먼초	비고사리
비늘석송	비자란	산작약	새깃아재비
석곡	선녀고사리	섬꿩고사리	섬다래
손바닥난초	숟갈일엽	암매	애기더덕
애기버어먼초	애기사철란	애기천마	왕벚나무
으름난초	일엽아재비	자주땅귀개	제주고사리삼
제주산버들	제주황기	좀갈매나무	주걱비름
죽백란	죽절초	줄석송	지네발란
차걸이란	차꼬리고사리	참나무겨우살이	채진목
초령목	층층고란초	콩짜개란	탐라난
풍란	피뿌리풀	한들고사리	한라솜다리
한라송이풀	한라옥잠난초	한라천마	한란
혹난초	흰땃딸기		

위기종_EN(Endangered species) : 55종			
갈매기난초	개가시나무	개회향	갯대추나무
거센털꽃마리	구름떡쑥	긴잎꿩의다리	께묵
꼬리겨우살이	꼬리족제비고사리	나도고사리삼	나도은조롱
나도진퍼리고사리	난장이이끼	눈향나무	담팔수
대흥란	덩굴민백미꽃	모데미풀	무엽란
문주란	물고사리	물까치수염	바늘엉겅퀴
박달목서	반쪽고사리	밤일엽	밤잎고사리
버들일엽	비비추난초	삼백초	설앵초
섬꽃마리	섬오갈피	솔붓꽃	솔잎란
솜아마존	실꽃풀	씨눈난초	여름새우난초
왕다람쥐꼬리	전주물꼬리풀	제주달구지풀	제주상사화
좀다람쥐꼬리	좀민들레	지느러미고사리	톱지내고사리
한라개승마	한라구절초	한라꽃장포	한라잠자리난
한라장구채	혹난초	흑오미자	

취약종_VU(Vulnerable) : 73종			
가시딸기	개부싯깃고사리	개쓴풀	개차고사리
개톱고사리	개톱날고사리	갯금불초	갯취
거꾸리개고사리	거지딸기	검은재나무	공작고사리
금방망이	금붓꽃	깔끔좁쌀풀	꼬마은난초
끈끈이주걱	나도생강	나도수정초	나도옥잠화
나도제비란	댕댕이나무	덩굴용담	두메대극
들떡쑥	들쭉나무	등에풀	땅귀개
땅나리	매화마름	먹쇠채	물꼬리풀
물잔디	방울새란	백량금	백리향
백작약	버들금불초	범부채	붓순나무
산들깨	새우난초	선백미꽃	섬공작고사리
섬잔대	세뿔투구꽃	소귀나무	쇠채
순채	시로미	시호	쑥방망이
알록큰봉의꼬리	애기우산나물	야고	약난초
연화바위솔	옹굿나물	왕씀배	왜박주가리
외잎쑥	자란	주목	진퍼리개고사리
천마	초종용	큰방울새난	큰처녀고사리
통발	해녀콩	호랑가시나무	황근
흑삼룡			

약관심종_LC(Least Concerned) : 34종			
개족도리풀	개지치	갯방풍	검팽나무
게박쥐나물	고란초	골고사리	구상나무
구상난풀	금강애기나리	금마타리	꽃창포
나도개감채	낙지다리	낚시돌풀	녹나무
늦고사리삼	된장풀	두르미천남성	모새달
물질경이	변산바람꽃	사철란	산솜방망이
새박	세잎종덩굴	솜양지꽃	수정난풀
왜구실사리	이팝나무	정향나무	지치
창포	한라돌쩌귀		

자료부족종_DD(Date Deficient) : 46종			
각시제비꽃	갈사초	개감채	개구리갓
개대황	거미란	거제딸기	구름체꽃
구름개고사리	금떡쑥	금억새	긴갯금불초
깃고사리	꿩고사리	나비국수나무	단풍박쥐나무
둥근잎택사	매화오리나무	물석송	바위장대
백두사초	벗풀	북천물통이	산진달래
섬매발톱나무	섬쥐깨풀	손고비	솜다리
수궁초	수수새	애기담배풀	염추사초
옥녀꽃대	인삼	좀나도고사리삼	좀도깨비사초
좀사다리고사리	좀사위질빵	주걱일엽	주름고사리
지리산오갈피	창일엽	큰개고사리	큰절굿대
토현삼	한라산참꽃나무		

미평가종_NE(Not Evaluated) : 10종			
나도잠자리난	빌레나무(천량금)	섬까치수염	성널수국
영주풀	인가목	제주방울란	제주백서향
한라새둥지란	소란		